

# '22.3월 美 기준금리 인상과 향후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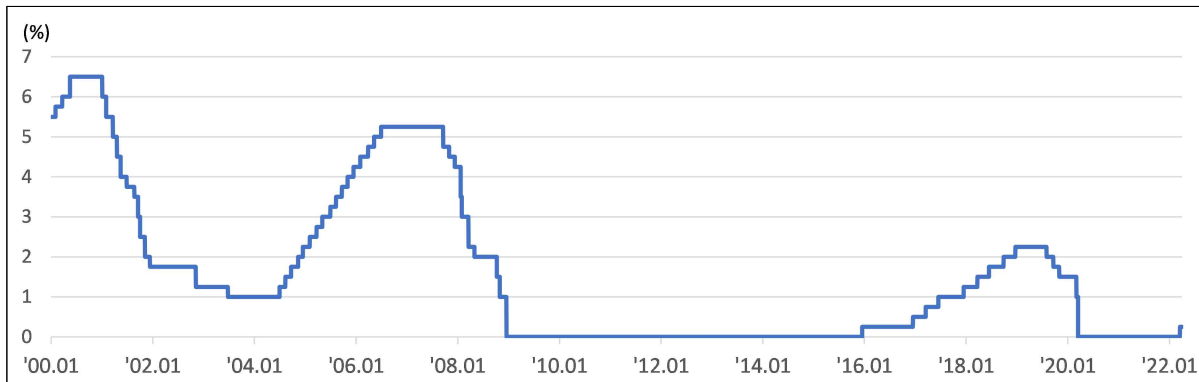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 
박은수 (telescreen@kdb.co.kr)

- ◆ 미 연준은 3월 FOMC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 25bp 인상을 단행
- ◆ 향후 '22년 중 25bp씩 6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나, 50bp 이상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

## □ 미 연준은 '22.3.16일 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25bp 인상

- 기준금리를 기존 0~0.25%에서 0.25~0.50%로 인상
- 이로써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작된 2년간의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

미국 기준금리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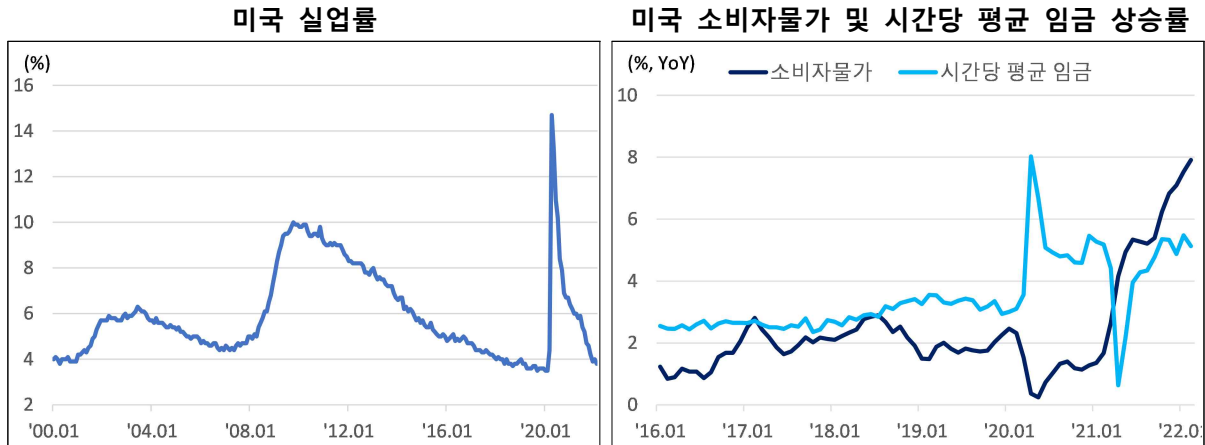
자료 : FRED

## □ 고용시장의 안정 속에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

- 미 고용시장은 실업률이 3%대에 진입\*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, 3월 FOMC는 1월 대비 강화된 표현\*\*으로 고용시장의 안정적 회복을 시사
  - \* 실업률(%): 3.5('20.1월) → 4.4('20.3월) → 14.7('20.4월) → 3.9('21.12월) → 4.0('22.1월) → 3.8('22.2월)
  - \*\* 1월 성명서의 "건조한(solid) 회복"이라는 표현을 "강한(strong) 회복"으로 변경
- 반면, 수급 불균형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%를 넘어섰으며\*, 임금상승과 우크라이나-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할 필요 확대
  - \* 소비자물가 상승률(% YoY): 6.9('21.11월) → 7.1('21.12월) → 7.5('22.1월) → 7.9('22.2월)

-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노동수요 증가로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년동월대비 5% 이상 상승\*

\* 시간당 평균 임금상승률(% YoY) : 5.5('20.12월) → 0.6('21.4월) → 5.5('22.1월) → 5.5('22.2월)



자료 : FRED

자료 : FRED

□ '22년 중 25bp씩 6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나, 50bp 이상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

- FOMC는 점도표를 통해 '22년말 기준금리 수준을 1.9%로 제시\*, 이에 따라 남은 6번의 FOMC\*\*에서 기준금리를 25bp씩 인상할 것으로 예상

\* FOMC 위원들이 예상한 연말 기준금리 수준의 중위값

\*\* 5.3~4일, 6.14~15일, 7.26~27일, 9.20~21일, 11.1~2일, 12.13~14일

- 그러나 물가안정을 위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50bp 이상 인상하는 빅스텝\*을 밟을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

\*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는 것을 베이비스텝, 50bp 이상 인상하는 것을 빅스텝으로 표현

- FOMC는 '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.0%에서 2.8%로 하향조정\*하며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, 이는 연준이 물가 안정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을 시사

\* 파월 의장은 잠재성장률 수준(1.75% 내외)을 감안시 여전히 높은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발언

- 파월 연준 의장은 3.21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25bp 초과하여 공격적으로 인상할 수도 있다고 발언

- Fed Fund Rate 선물가격에 반영된 5월 FOMC의 기준금리 50bp 인상 확률\*은 60% 이상

\* CME는 Fed Fund Rate 선물가격을 이용하여 FedWatch Tool을 통해 기준금리 인상 확률을 계산·제공